

## Field Issue

# 2013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대전 Creative IT, Be in IT!

+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 주관으로 국내 최대의 전자·IT 전시회인 2013 전자정보통신산업대전이 지난 10월 7일~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53,541㎡의 규모와 20개국 800여개 업체가 참가하여 나흘간 열렸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한국전자전(KES 2013)은 "Creative IT, Be in IT!(창조적인 IT, 그 세계로 오세요!)"를 주제로 하며 전자·IT산업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트리(tree)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Interrelated", 세계적 기업들의 최첨단 전자·IT제품이 경연을 펼치는 "International", 새롭고 흥미로운 제품들이 출품되는 "Interesting", 동작인식 소프트웨어 등 신기한 기술들이 선보이는 "Interactive" 등 4대 키워드로 UHD TV, 곡면 OLED TV, 스마트워치 등 국내의 최첨단 제품을 비롯하여 플렉시블&웨어러블 디바이스, 3D 실사프린팅, 홈 서비스 로봇 등 흥미로운 최신 융합 제품들이 대거 선보였다.

### 디지털 방송장비 홍보관

우수 방송음향장비들이 선보인 디지털 방송장비 홍보관에서 포스티엄코리아는 해외 방송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사의 Rack 모니터를 전시했다. 960×540, 800×480의 고해상도, 8비트의 색재현율을 자랑하는 4.3, 4.8, 5, 7, 9인치 다양





포스티엄코리아의  
랙 모니터



문자발생기를 선보인  
컴팩스



스펙트럼통신기술 부스



소출력 송신 안테나인  
LTA 470

스크린이 특징이다.

국내 지상파 방송 수신 안테나를 생산하는 스펙트럼통신기술은 지상파 DTV를 수신할 수 있는 가변형 스마트안테나인 마스터-프로 안테나와 실내안테나인 옴니 새턴, 새로 선보이는 소출력 송신 안테나인 LTA 470을 전시했다.

문자발생기 전문회사 컴팩스는 차세대 보급형 Real-Time CG 프로그램인 NABI를 채용한 HD600 시스템과 Full HD 3D Real-Time Render 시스템인 Bellus HD 시리즈를 선보였다.

## LG전자

LG전자는 'LG, 세계 최초부터 세계 최고까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OLED TV, UHD TV, 스마트폰 G2, 뷰3, G Pad 등을 선보였다. 작년과 동일하게 전시장 입구에 초대형 3D 어트랙터를 배치하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얼마 남지 않은 지상파 3D 정규 편성과 3D는 LG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듯 보였다.

지난 CES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곡면 OLED는 한발 더 나아가 UHD TV의 해상도로 전시되었으며, 77형의 인체 공학적인 곡면디자인과 4mm의 초슬림을 자랑한다. LG의 G Pad는 세계 최초로 8.3인치 화면에 Full HD IPS 패널을 채용하고,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600, 저장장치는 eMMC 16GB를 탑재했다. G2 또한, 전시장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객들이 쉽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FHD와 1,300만 화소 OIS(광학식 손떨림 방지) 카메라 기능이 돋보이는 전시였다. 그밖에 LG전자는 시네마 3D 구글 TV와 작년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21:9 시네뷰 모니터, 세계최소 3.6mm 베젤의 비디오월 등의 최신 제품 전시와 시네마 3D 게임존, 포켓포토 체험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방문에 보답했다.



LG의 스마트폰 G2



4월 출시한 곡면 OLED TV



시네마 3D 구글 TV



소형 빅프로젝터 미니빔



8.3인치 G P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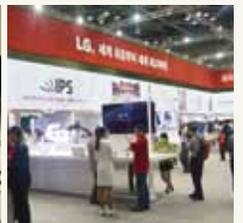
다양한 크기의 UHD TV



세계 최소 3.6mm 베젤 비디오월



21:9 시네뷰 모니터



LG 부스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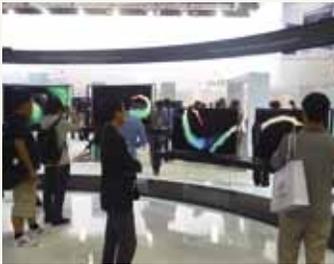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놀라움의 여정'을 주제로 가장 큰 전시규모 우선 관람객을 압도했다. 삼성은 LG와 마찬가지로 곡면형 OLED TV와 85, 98인치 UHDTV를 비롯해 세계 최초 NFC가 가능한 스마트 레이저 프린터, 갤럭시S4, 갤럭시 노트 10.1, 노트3와 갤럭시 기어 등을 선보였다. ATIV Book 9 plus는 13.3인치에서 FHD 터치화면을 지원하고, 윈도우 8.1에서는 QHD(3200×1800)의 초고해상도가 가능하다. 리튬-폴리머 배터리로 최대 11시간의 구동 시간과 1.39Kg의 무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본 기자가 눈여겨봤던 제품은 갤럭시NX로 마치 스마트폰에 DSLR 렌즈를 달아놓은 카메라였다. 일명 크롭바디라 일컬어지는 APS-C CMOS 센서를 이용하고, LTE와 Wi-Fi 연결로 바로 페이스 북같은 SNS에 연동이 가능하며, OIS를 지원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제품으로 생각되나 얼마 전 발표된 소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 A7r의 공개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하겠다.

갤럭시 기어는 320×320의 해상도를 가지는 AMOLED 디스플레이와 190만 화소와 블루투스 4.0+BLU 방식으로 스마트폰과 통신한다. 연락처 확인 및 기본적인 세팅 변경이 가능하며, 전화와 사진 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전시의 마지막 날 삼성전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갤럭시 라운드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삼성의 곡면형 OLED TV



27인치 광시야각 모니터



NFC가 가능한 스마트 프린터



스마트 3D 블루레이 플레이어



갤럭시NX



손목시계형 갤럭시 기어



갤럭시 기어 전시 모습



스마트 3D 블루레이 플레이어



## 파나소닉코리아

웰빙가전의 명가 파나소닉코리아는 3칩 DLP 프로젝터 PT-DZ21KE를 전시했는데, 맵핑이라하여 고화질 프로젝터를 이용, 건축물과 같은 피사체의 벽과 공간에 영상 투사가 가능하다. 파나소닉코리아는 그밖에 미러리스 카메라인 루믹스 시리즈와 안마기 등 다양한 가정용 제품을 선보였다.



152인치 4K PDP와 가정용 전자제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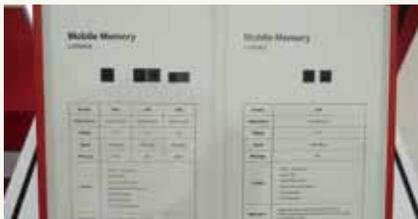


칩 DLP 프로젝터 PT-DZ21KE



## SK hynix

SK 하이닉스는 자사의 다양한 메모리와 SSD 등 비메모리 분야의 여러 솔루션을 선보였다. LPDDR3 모바일 메모리와 차세대 메모리 구동 방식인 STT-MRAM, ReRAM, PCRAM의 이론을 알기 쉽게 전시하고, SATA 6.0Gbps를 지원하는 2.5인치 SSD와 mSATA, SLC와 MLC의 다양한 용량의 NAND Flash 메모리, 웨이퍼 기술들을 전시했다.



LPDDR3 모바일 메모리 전시



SK 하이닉스의 2.5인치 SSD



##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는 자사의 SSD840 시리즈와 양산에 들어간 20nm DDR4 메모리를 선보였고, 역시 20nm의 LPDDR3 모바일 DRAM을 전시했다. 진화된 NAND Flash 메모리인 10nm 급의 eMMC 메모리칩 등 다양한 메모리와 칩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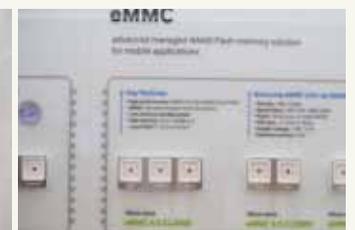
840 시리즈 SSD 전시



840 EVO의 부품들



삼성 SSD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전시



eMMC 낸드플래시 메모리



## LG Display

LG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자사의 IPS 패널을 도입한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 55인치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다양한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한쪽 벽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했다.



5.2인치부터 UHD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크기의 패널을 전시



55인치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 LG Innotek

LG 이노텍은 소재 전문 기업답게 칩 LED 및 다양한 모듈을 선보였다. G2에 사용된 카메라 모듈은 1300만 화소로 OIS를 지원하고, LTE 모듈 및 라우터와 자동차 센서 등을 전시했다.



카메라 모듈 전시(OIS 모듈)



### KETI

전자부품연구원은 kW급 무선전력전송 솔루션을 전면  
에 내세웠다. 또한 유럽의 HD 방송 서비스인 DVB-T2/  
C2/S2를 하나의 수신기에서 수신할 수 있는 유럽형 고  
화질 HD 방송 가변 수신 기술과 휴대기기용 플렉서블  
안테나 및 RF 필터 등의 연구 실적을 전시했다.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유럽형 고화질 HD 방송 가변 수신 기술



KETI의 다양한 연구결과물들

### 한국전자전을 둘러보며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CES, 9월 독일에서 열리는 IFA가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박람회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대전은 비교적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가전전시회이며, 한국전자전이 올해로 44년을 맞는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하겠다.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군과 방송, 통신 등의 제품과 함께 여러 중소기업의 전자회사와 대학교에서 그간의 연구결과와 제품을 선보이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전시장을 둘러보며, 시간이 지날수록 방송과 통신, 전자제품의 벽이 허물어지는 만큼 전자전과 같은 박람회를 직접 관람할 수 있어 기술 동향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올해 전자전을 참관한 후, 다양한 제품에 놀라웠지만 한편으로 본 기자의 눈을 확 끌어잡는 기술과 제품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곡면 OLED나 UHD TV 등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제품과 작년 전자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다. 1년의 세월에 많은 변화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전자회사들의 기술들이 소개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동아시아를 대표하며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가 생기는 것을 소망하면 욕심일까?

